

월요광장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새해를 맞으면서 떠올리게 되는 물음이다. 130여 년 전 러시아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혼란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던진 물음이기도 하다. 2017년 새해에는 이 물음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더욱 각별하고 절절하다. 웬만해서는 이 물음에 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니 같은 답을 기대할 수도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지” 하며 물음의 무게를 불편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는 의지 없이 그냥지냥 사는 것이야말로 악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선한 일은 알이고, 유일하게 악한 일이 무지다. ‘알지 못함’ 즉 지혜 없음이 악이라는 것이다. 사실 세상살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선과 악 또한 서로 뒤엉키기도 한다. 그래서 선악의 문제를 두부로 자르듯이 간단하게

가르는 것은 때로 위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왜 무지가 곧 악이며 알이 선이라고 역설하는가?

무지가 곧 악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어떤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한 비판이 결코 아니다. 무지는 무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지가 곧 무식과 같은 의미라면 최고의 학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다. 그럴 리가 있는가!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식은 부끄러워하며 감추지만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일조차 드물다. 차고 넘치는 지식이 있어도 무지한 사람들은 여전히 무지하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과 무지는 반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무지는 반성 없이 살아가는 태도임을 알 수 있다. 무지는 더 나은 것과 나쁜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묻지 않는 무관심 상태의 지속이다. 무관심은 아무에게도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도 모두의 삶을 냉소하고 얼어붙게 하는 절망을 낳는다. 심지어 무관심을 수준 높은 교양으로, 세련된 ‘쿨함’으로 오해하는 사이에 무지의 빛은 더욱 견고해진다.

이런 뜻에서 무지와 무관심은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다른 이름을 가진 부정의

악이다. 무관심은 스스로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하고 참된 것에 다가가는 지혜를 비웃으며, 무지는 우리를 미몽의 어리석은 ‘동굴’에 가두기 때문이다. 미몽과 환상으로 어지러운 무지의 상태는 삶을 왜곡하고 파괴한다. 무지가 유일한 악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니체에 따르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가치와 무가치를 평가하는 존재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원한다. 이것이 곧 알, 즉 지혜의 의미다. 무지가 무식을 뜻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은 유식을 말하지 않는다. 알은 어떤 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행위이다. 그래서 알은 어둠에서 지혜의 빛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고 나아가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용기다.

이런 의미에서 알은 명문 학교 졸업장이나 비싼 돈을 치른 자격증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알은 오직 자신이 스스로에게 요청하는 결단이며 반성과 성찰의 실천이며,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알의 본질은 진실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 이러한 물음은 더 나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알의 시작이다. 이런 뜻에서 소크라테스는 알이 유일한 선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알과 삶

의 관계를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공허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일상의 습관과 안락 속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 알을 위해서 먼저 던져야 하는 물음들이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두 눈을 감고 스스로도 믿지 않는 이유와 변명을 이름표처럼 달기도 한다. 이렇게 무지는 진실 앞에서 눈을 감을 것을 강요하고, 알은 눈을 크게 뜨기를 요청한다.

항상 눈을 뜨고 살기를 갈망했던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답했다. 이 답은 또 다른 물음을 던진다.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이다. 이에 대한 답은 알을 위한 두 눈을 뜨고자 하는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을 사랑할 용기가 있는가?

지금 우리는 알 대신 무지를 선택한 대가를 힘겹게 치르고 있다. 하지만 무지의 동굴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라면 기꺼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얻는 것이 무지와 미몽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제 무지의 값을 지불하고 알을 행하는 삶을 위해서 스스로 다시 묻는다. 올 한 해,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법조칼럼

격렬하게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



박 승 일
변호사·광주지방법변호사회 공보이사

지난해 말부터 우리 국민들은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다.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은 헌정질서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탄핵 의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중이다.

여전히 주말 촛불집회는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에서는 현재 상황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조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청문회가 남긴 유행어는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이며 ‘공황장애로 출석하지 않겠다’든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기상천외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인 필자마저도 아연케 하는 후안무치한 상황, 특히 일부 법조인의 궤변 앞에서 참담하기가 특 떨어져 더 이상 신문이나 TV를 보고 싶지 않다.

졸지에 구황작물인 ‘고구마’는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한 ‘담담함’을 지칭하는 말로 의미가 달라지고 있고, ‘사이다’라는 말도 고구마에 얹힌 국민의 가슴을 뚫어주는 ‘시원함’으로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미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격렬하게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집단 지성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행동하여 책임을 지거나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도 남아 있지 않다.

올해 대통령선거는 시기의 문제일 뿐 무조건 열리게 되어 있다. 이미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만 4개의 정당이 되었고, 선거 때까지 이합집산을 할 것이다. 올해는 통합이라는 말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이 곧바로 야권의 집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인이나 정당의 지지도 흐름을 보면 반사적 이익에 갇히고 이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다.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인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누구도 집권대안세력으로 확실한 눈도장을 찍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크게 인지도가 오르거나 호감이 나타난 이는 있겠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

정당이야 정권획득이 최대 목적이고 가차다. 따라서 이를 장기는 목표로 두지 아니한 정당은 정당도 아니다.

여기에 정권교체라는 말이 또 다른 화두다. 유권자들은 기존 정권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넓은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당이 아니면 제대로 된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지지는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집권만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이들이 올해 과연 목

적을 같이 하는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 세력을 어떻게 코드기는지, 어떻게 침몰시키려고 하는지도 관전포인트다.

이미 우리 국민은 광장의 정치, 국민주권의 시대임을 천명하였다. 정치인의 화려한 수사에 대해 알아도 모르는 척 넘어가 줄 뿐, 결국 표로 심판할 예정이다.

격변이 예상되는 올해다. 벌써 보름이 지난 새해에서 아직 마음을 다잡지 못하거나 작심삼일한 이들에게는 다가오는 설 연휴가 심기일전의 마지막 기회다. 중학교 졸업을 앞둔 예비 고교생도 방학을 핑계로 더 이상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놀기만 한다면 방학이 주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행하지 못하고 국민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이 AI 나 독감이 우리의 건강을 심각수준으로 위협하고 있다.

누군가 목록적 자신의 일을 격렬하게 하고는 있겠지만, 적어도 뉴스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2017년 1월, 이 시점에 대해 후일 역사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다고 기록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기 고

무질서한 수입쌀 유통, 두고만 볼 것인가



조 기 영
농협 전남지역본부 양곡자재단 차장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쌀이 수입된 시기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UR농업협정은 WTO 출범과 함께 최초의 세계농업규범이 되면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철폐(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가 이뤄졌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전통식단의 주식이 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화 유예 규정을 두었는데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 의무수입 물량(MMA·최소시장 접근)을 받는 조건으로 1차 2004년까지 110만t, 2차 2014년까지 317만t 20년 동안 총 427만t의 물량을 수입했다.

정부는 2015년 관세율 513%로 쌀 시장

을 개방하면서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고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과 관세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쌀 수입 관세율이 513%로 결정되면 고율관세 수입 물량은 국내 쌀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수입하기로 한 저율관세쿼터(TRQ) 40만t의 의무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 없이 받아야 할 실정이다.

의무수입 물량 40만t은 우리나라 쌀 생산량(2016년 420만t)의 10%에 육박하는 대단히 많은 물량이다. 국내 쌀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수입쌀 중 일부(2015년부터 매년 6만t 상당)는 밥쌀용으로 수입하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재포장이 가능하다. 재포장은 포대갈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산쌀 등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산인양 소비자를 현혹할 수는 있다.

실제로 최근 20kg 단위로 수입한 밥쌀 용품을 국내업체가 수입포장지를 해체하고 2kg 단위로 소포장에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식당이나 인터

넷으로만 거래되던 수입쌀이 이젠 국내산 쌀과 같은 판매대에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다. 판매가격은 2kg포장에 4980원으로 국내산과는 비슷하지만 지난해 9월 aT의 밥쌀용 수입쌀 공매가격(2kg 기준 미국쌀 2732원, 중국쌀 2466원, 태국쌀 1926원)에 비하면 2배 상당 높게 팔리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식품소비형태 ‘수입쌀 취식(먹어볼)의향’ 조사를 보면 2015년 1.9%에서 2016년 10%로 1년 새 5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수입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대부분 수입쌀은 수확한지 2~3년 정도 된 묵은쌀이다. 수확기가 비슷한 수준인 2013~2014년산 국산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급냉에 사료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국산쌀은 극심한 흉년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확기(10~12월)에 사들인 쌀이 이듬해에 식탁에 오른다. 국산쌀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대부분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수입쌀의 유통 상황을 살펴보면 묵은쌀 수입과 1등급과 3등

급으로 수입된 쌀이 판매과정에서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 또한 수입포장지를 해체하여 재포장되는 등 수입쌀 유통과정이 그리 투명하지 않아 보인다. 수입쌀에 대한 안전성과 부정유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수입쌀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수입쌀과 국산쌀이 유통과정에서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보면 ‘수입쌀에 대해 고액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포장을 허용하는 등 관리가 느슨하다는 느낌이다.

지금은 사라졌을 것으로 보지만 과거 수입산쌀 포대갈이 등 부정유통으로 국내 쌀시장이 큰 혼란을 겪으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곤 했다. 정부는 수입쌀 부정유통을 발본색원해야 함은 물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은 우리민족의 생명줄이다. 국내 쌀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식량안보의 핵심요소이며, 우리농업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다.

社 說

드러난 ‘헬기 사격’ 발포 명령자는 누구인가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 서 사격을 했다는 증거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감정 의뢰 기관인 광주시에 통보한 ‘전일빌딩 탄흔 감정서’를 통해 건물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150여 점의 총탄 흔적은 정지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국과수의 발표는 정부 기관이 37년 만에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군 당국이 불특정 다수에게 사격을 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자유권 발동’이라는 신군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라는 점에서 향후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셈이다.

그동안 신군부는 헬기 사격에 대한 수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정부도 헬기 사격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1995년 11월 5·18에 대한 전면 재조사 차원에서 광주 금남로 일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전일빌딩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 및 피해 발생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하면서도 전일빌딩 내부에 진입해 현장을 살펴보지 않은 것이다.

37년 만에 헬기 사격이 밝혀진 만큼 이제부터는 정부 차원의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전일빌딩 천장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총탄을 찾아내 헬기 기총소사 여부까지도 밝혀내야 한다. M60 등 기관총이 사용됐을 경우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북한과 같은 적으로 간주하고 학살을 자행하려 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5·18 당시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5·18의 진상 규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누가 어떤 이유로 총을 쏘라고 명령했느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상인 지원 서둘러야

어제 새벽 여수시 교통 수산시장에서 큰불이 나 시장 1층의 120개 점포 가운데 116개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이다.

새벽 시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불로 소방서는 5억2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인들은 설을 앞두고 점포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수산물을 준비해 뒀다고 말하고 있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 합동소방점검 이후 불과 40일 만에 불이 난 것은 부실 점검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수시와 여수소방서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시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으나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전기 관련 지적

사항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에서 큰불이 날 때마다 안전 대책이 쏟아지고 점검이 이뤄졌지만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인력 부족이나 영업 방해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기 힘든 측면도 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데다 소방시설 설치율도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 더욱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의식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설을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현장을 방문한 이낙연 전남지사는 “시급한 전기 연결과 청소 문제 등 복구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중국 방문 중인 윤장현 광주 시장도 이 지사와 통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당국은 유관 기관과 연계해 생활안정자금과 임시판매장 설치 등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은 들은 적이 있지만 알지는 못합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수없이 내뱉은 말이다. 하지만 그 모두가 하나둘씩 위증임이 밝혀지고 있다.

위터게이트로 하야한 니슨 전 미국 대통령은 바리보다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치명타가 됐다. 니슨은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사무실을 불법 도청했으나 재선에 성공한다.

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고발이 안 될 수도 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위증 고발은 8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처벌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반면 미국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 위증은 형량이 최대 5년의 징역이지만 가중처벌되고, 타인의 범죄에 대한 경우는 공범으로 취급돼 종신형까지 처해진다. 특히 위증을 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 정치 풍토가 있는데 이게 더 무섭다. 우리도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를 계기로 위증에는 반드시 처벌과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한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위증죄

해, 권력 남용 등 11개 항의 탄핵 사유를 담은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클린턴은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 부정적이던 여론은 바뀌었고, 그는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증인들이 위증을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처벌되는 경우가 드문 탓이다. 국회 고발하지만 도청 관련 언

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고발이 안 될 수도 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위증 고발은 8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처벌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반면 미국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 위증은 형량이 최대 5년의 징역이지만 가중처벌되고, 타인의 범죄에 대한 경우는 공범으로 취급돼 종신형까지 처해진다. 특히 위증을 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 정치 풍토가 있는데 이게 더 무섭다. 우리도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를 계기로 위증에는 반드시 처벌과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한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61 (FAX 227-9600)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